

사 설

폭염과 장마가 이어지면서 후덥지근한 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5일 고성지역 26개 해변이 일제히 개장하고 손님맞이에 나섰다. 많은 피서객이 몰리려면 이달 하순께나 되어야 할 것 같다. 지역경기 활성화의 최대 피크인 이번 여름 피서철에는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으면 하는 것이 지역주민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고성군의회 의원들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홍봉선 위원장을 비롯해 고선기, 김진, 함명준, 함형완, 황상연 등 6명의 의원들이 너나 없이 모두 열심히 활동해

준 것으로 평가된다. 문명호 의장도 사무실에 나와 의원들의 감시활동을 독려하며 보다 알찬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왔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이처럼 주민들을 대신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죽왕면수협 수산물저장시설 재검토해야

대해 잘잘못을 따지고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을 볼 때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가치를 새삼 느끼게 된다. 감사를 받는 공무원들은 간혹 타당성이 부족한 질책으로 곤혹스러울 때도 있지만,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라는 점을 감안해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줘 흐뭇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에 대해 깊이 있는 감사가 진행됐다. 그 가운데 해양수산과 업무인 죽왕면수협 수산물저장시설과 고성태 브랜드화 사업 관련 냉동냉장보관창고 사업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

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특히 30억원이 투입되는 죽왕면수협 수산물저장시설에 대해서는 함명준 의원과 함형완 의원이 동시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 의원들에 따르면 죽왕면수협은 활어위판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굳이 저장시설이 필요하지 않으며,

현재 아야진항에 있는 시설도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들의 이런 문제 제기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성군은 지금이라도 죽왕면수협의 수산물저장시설에 대해 사업 추진 여부를 재점검해야 한다. 군의회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단순히 잘잘못을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아직 시행되지 않은 사업이나 정책이 있을 경우 잘못을 바로 잡는 데 있다.

이외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사업이나 개선할 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고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22일까지 이어지는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들이 보다 분발해줄 것을 기대한다.

신선한 공기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던 장수촌에 노인은 줄어들고 이제 대도시 노인인구가 늘었다. 많은 말벗이 있고 즐길 수 있는 이벤트 최첨단의료팀에 의료시설을 활용하며, 건강홍보교육 식이요법 그리고 경로당이 활성화 되어 마음과 가슴이 열려 사회복지관(행복집)에선 백세 트렌드 통념으로 100세에 일하고 재도전하여 일하는 노장의 건강교육은 실천 교육장이 되었다는 것.

활발한 활동으로 살다간다는 건강교육은 자리바꿈하여 1세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마음 편안하고 음식 절제하고 몸에 알맞은 운동하며 낙천적사고 긍정적이며 세상이 살기 좋아졌다는 의미이다. 고분고분 의중계 친절하게 따뜻한 분위기 좋고 마음은 풍요롭고 부족함 없이 만족함에 의욕적 생활은 무병장수의 요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장들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보장이 첫째 과제이다. 고령자의 고용촉진법 개선 보험개발 개선 창업보장제(자영업자 장려 세제혜택) 명실상부한 국가적 사회적 복지정책의 적정한 범위내에서 생산적 복지에 일익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화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둘째 노장의 능력을 인정하여 최대 발휘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는 과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여 그의 재능을 활용 그 능력 재능 등을 발굴 인정하여 인재를 사회적 국가적으로 조장함으로써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금강칼럼

김 종 식
객원논설위원



100세 시대에 당하여 무위평화에 살고 있다

부여해서 생산 활동에 기여 하도록 가일층 개혁적인 힘을 모아져야 한다.

셋째 귀농하고자 하는 자, 귀농 자, 종전 생업을 하고자 하는 자, 창업업을 하고자 하는 자, 창업자 기타 등을 생산적 복지화로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하겠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무엇이든 생산적인 사업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야 한다는 숙명적 해법을 찾아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해결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넷째 세계 이곳저곳을 찾아 공생의 길을 열어보자는 것. 즉 오대양 육대주엔 생산적 복지를 위하여 700만 동포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개혁을 우리와 함께 공존 공생 하자는 것이다. 이제 복지 눈도 국내서 세계로 옮김은 지구촌시대에 적시적기 이라 본다.

다섯째 오대선을 추구한다. 다섯 가지 선덕은 (화지; 서로 뜻이 통하다) (화용; 밝은 얼굴이다) (주피; 어른이 예로 거느린다) 임금은 (화송; 격려 칭송하다) (흥무; 감동

을 주는 용맹) 등을 사술에 쫓아구한다는 것. 무지는 교육으로 밝음 지혜를 얻고, 불결은 청결정심으로 물리친다. 질병은 치유하고 빈곤은 근면으로 퇴치한다. 나태는 예와 계몽으로 물리쳐야 할 것이다. 일하지 않고 먹고 노는 이들이 없도록 아동기로 가정에서부터 근로의 준귀·신성함을 그리고 투철한 근로정신교육에 국가사회는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부득불 속담에서 사사한 점을 나누기로 한다. “노인의 망령은 고기로 고치고 젊은이의 망령은 몽둥이로 고친다” 하니 노인에게 잘 해드려야 하고 어린이가 잘못은 엄하게 세 살 버릇이 여든 살까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말을 새긴다. 놀고먹는 버릇은 본인은 자멸로 몰고 가는 행위이요 길이다. 나아가 국가사회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 최악중의 악이다. 땀 흘려 힘써 일하는 사람은 보람을 가질 것이며 행복하다겠다. 영국 신비사상가 브레이크 윌리엄은 대개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은 노

력가이다. 게으름뱅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았는가? 노력의 결과로써 어떤 성과의 기쁨 없이는 누구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행복은 노력이요 나태는 불행을 낳는다.

건강은 곧 행복이다. 21호에 이어 대산을 유익하게 사용하면 의료비 절약에도 도움이 된다.

31)머리가 가려울 땐 마늘을 썰어서 그 조각으로 문지르면 효험을 본다. 32) 변비엔 마늘 3통을 껍질을 벗겨 참깨 119g을 보가서 찜은 다음 저녁식사 때 한 번에 다 먹는다.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복용하면 효과를 본다. 한편 만성변비증은 (석곡; 난초과 석곡풀 강원산지)600g을 매일 3.75g씩 삶아 그 물을 마시면 효력이 있다. 33)(세균성이질; 미세하고 하등인 단세포 육안으로 볼 수 없고 구조가 간단것으로서 설사를 일으킴)엔 쌀 식초에 마늘을 담가서 1월이 지난다음 매일 식사 전 3~5쪽 3번 먹는다. 아메이성 대장염 이질에 같은 방법으로 다스린다. 34)(소아백일해; 어린이 백일기침)엔 껍질 벗긴 마늘 600g썰어서 약 3kg을 끓인 물에 담가 10분간 찜는다. 그 후 10시간정도 재웠다가 배 형상으로 여과시켜 그 물을 복용하면 된다. 초기 때엔 3시간마다 찜술가락에 설탕을 넣어 복용한다. 이렇게 하여 계속하여 복용 2~3주가 지나면 효용이 있다. 35)고혈압치료 및 예방엔 매 식사 때 마다 마늘 3~5쪽씩 된장에 찍어 먹으면 2~3월이 지나면 효능이 있다.

◇편집국에서

○...고성군이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4월 준공한 외국인선원 숙소가 벽을 타고 빗물이 새어 들어 부실공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한다.

배를 타려는 내국인들이 부족해 멀리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인력을 구해오고 있는 어업

현실도 안타깝지만, 낯선 타국땅에서 고생하는 외국인 선원들이 비가 새는 방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현실도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고성군은 보수공사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시공업체를 독려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

강원 고성신문 • 등록번호 : 강원 다 01183 • 등록일 : 2011년 1월20일 • 간별 : 주간

•우 219-803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편집국 681-1666 •구독·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최낙관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